

# 지식공유

2025  
VOL. 04

# Brief



지식공유브리프 바로가기

## 2025년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 KDI 조동철 원장 기조연설
- 「KSP,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패널 토론 주요 내용
- 행사스케치

##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 KSP와 EDCF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제언
-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AI 에이전트와 표준 경쟁
- Australi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 일상과 산업의 숨은 힘,  
측정과학을 통한 KSP 협력
-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개발협력의 전략과 과제



## CID 연구포커스

- 디지털 전환 시대,  
페루 보건의로 혁신과 한-페루 협력 가능성

## YKSP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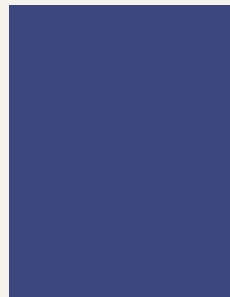
- KSP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 행사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연구 확산 세미나

## KSP 포커스

- [2024/25 키르기스공화국 KSP]  
수원국 주인식 제고를 위한  
ODA 모니터링 · 평가 역량 강화
- [2024/25 폴란드 KSP]  
KSP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AI,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제 구축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5 KSP 성과공유콘퍼런스

#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



2025년 10월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 주최 및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수출입은행·KOTRA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를 주제로 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지식공유브리프 4호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의 기조연설문과 「KSP,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토론 세션의 핵심 내용, 그리고 성과공유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였던 연구원들의 행사 스케치에 대해 공유한다.



**조동철**  
KDI 원장  
dccho@kdi.re.kr

## KDI 조동철 원장 기조연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DI는 197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50여 년의 연구 및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KDI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지원 아래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개국, 12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76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KSP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조엘 모키르 교수의 견해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혁신과 성장은 이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과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이 실천과 만나고, 연구가 상용화와 연결될 때, 지식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힘이 됩니다.

즉, 우리는 견고한 혁신 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APEC과 함께 열리는 KSP 행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와 자원, 실천 가능한 해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APEC은 세계 시장의 통합과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KSP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공유받고,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새로운 변수들이 기존의 지식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SP도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에서 '공동 창조와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 지식의 공유에서 지식의 공동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KSP는 한국의 과거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과 함께 새로운 통찰과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의 이전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함께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며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둘째, 민간 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만으로는 새로운 규범이나 혁신을 설계하고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 창업가, 시민사회가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KSP는 이러한 정부-기업-전문가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신뢰 기반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셋째, 지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험을 함께 감내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행에는 언제나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위험이 따릅니다. 이에 KSP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파일럿 프로젝트, 개념 검증, 공동 투자 등을 통한 '위험 공유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의 복잡한 도전과제를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고,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공동 번영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별 혁신 생태계를 세계의 협력과 창의성의 생태계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세계 시장을 연결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연결함으로써 보다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KDI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 KSP 파트너들과 함께 신뢰, 포용, 그리고 공유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식 공유에서 공동 번영으로,

대화에서 협력으로,

아이디어에서 집단행동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 「KSP,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패널 토론 주요 내용

‘지식 공유에서 공동 번영으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2025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의 세션 2에서는 「KSP,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KSP, Innovative Platform for Sustainable Growth)」을 주제로 KSP의 미래 방향과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다. 세션에는 고형권 前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창용 서울대 교수, 잔피에로 레온치치 중남미 개발은행(CAF) 부총재, 황기연 KAIST 초빙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고형권 좌장은 KSP가 출범 초기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정책자문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으나, 지난 20여 년간 상호적·지속적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중심의 공동 문제해결형 컨설팅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 복합위기 시대에 KSP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KSP의 고유한 강점과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주요 교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패널들은 KSP가 단순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넘어 상호 협력과 공동 창조 모델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레온치치 부총재** KSP가 수요 중심(demand-driven)적이며 유연성과 적응력이 높아 현지 현실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KSP의 정책 연구 결과가 실제 실행 단계(pre-investment stage)로 이어져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으로 연결되려면 국내외 개발금융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황기연 교수** KSP의 확장 모델로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을 바탕으로 헝가리에서 AI 기반 수요 응답형 교통(DRT)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EIPP는 정책 자문과 더불어 기술 시연과 현장 중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 주기 협력 프로그램이며,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플래그십 기업이 민관 협력(PPP) 모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창용 교수** KSP의 기본 정신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설계하며, 함께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KSP는 정책 자문, 역량 강화, 정책 권고의 제도화 및 거버넌스 개혁 연계라는 세 단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국 자체 프로그램은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해 실행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어서 패널들은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재편 등 복잡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KSP가 중립적·효과적으로 진화해 나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창용 교수** 정책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부처 간 협력을 확보하려면 OECD가 제시하는 '거버넌스 통합형(Whole-of-Government Approach)' 접근법을 참고해야 한다. 정부의 top-down 비전과 민간의 bottom-up 참여를 균형 있게 조합해야 하며, KSP가 정책설계-역량강화-제도개선의 선순환을 이끄는 구조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레온치치 부총재** KSP는 공여국-수혜국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협력 플랫폼'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KSP는 모든 국가가 재원을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상호호혜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고 기술력과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보유한 이상적 파트너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과 분절된 협력 구조 속에서도 향후 KSP는 기술적 전문성을 넘어 포괄적인 혁신 형태를 포용하고 다자개발은행, 학술기관, 지역 네트워크 등과 연계 협력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장기적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황기연 교수** 글로벌 차원의 지속되는 복합적 위기가 가속되는 가운데, 단순 정책자문 중심의 KSP로는 범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KSP가 정책 컨설팅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전략적 생태계(Strategic Ecosystem)' 구축형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인프라, 데이터, AI, 전기차 충전망, 자율주행 등을 통합하는 전 주기 복합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정책 비전, EU 탄소중립 의제 등 글로벌 정책 어젠다와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패널들은 AI가 KSP에 미치는 영향 및 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통찰을 제시하였다.



**최창용 교수:** KSP는 AI를 활용해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개발협력 정책을 설계하는 데 선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formation)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KSP는 AI 확산으로 심화하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황기연 교수** AI는 교통·물류 등 산업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핵심은 기술 자체라기보다 '활용방안'과 '부가가치'에 있다. 따라서 AI가 정책 설계와 운영 모델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KSP 역시 AI를 기술 도구가 아닌 정책, 산업, 사회를 연결하는 교차 의제(cross-cutting agenda)로 다루어야 한다.



**레은치 부총재** KSP는 AI 거버넌스 지원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할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 정부들이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데이터 윤리·알고리즘 투명성·공공 서비스 내 AI 활용 등에서 정책 대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 격차 해소와 투명성 제고, 공공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며, AI의 윤리적 활용과 감독체계를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더 포용적인 혁신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고형권 좌장은 총평에서 KSP의 핵심 가치가 신뢰, 유연성, 공유 학습(Shared Learning) 및 공동 혁신(Co-Creation)에 있으며, 분절된 세계 속에서도 지식협력은 국가 간 연결의 교량(Bridge)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AI 시대에 KSP는 인간의 전문성과 디지털 지능을 결합하여 단순 정책 이전이 아닌, 인간 중심(Human-centered)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이 세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사명임을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 행사 스케치

2025년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가 지난 10월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연계행사로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 (KDI)·한국수출입은행·KOTRA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를 주제로, 역내외 KSP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KSP 협력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KSP 유관기관, 민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KSP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함께 조망했다.

개회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장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KSP가 협력국의 핵심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한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혀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KSP가 앞으로 AI·디지털 등 미래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ODA·수출금융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 기후·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동철 원장은 기초연설에서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KSP가 단순한 지식 전수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식공동창출(Co-creation)'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을 잇는 혁신 생태계 구축 △민간·기업·전문가를 포괄하는 다층적 참여 구조 마련 △정책 아이디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위험 분담 파트너십(Risk-Sharing Partnership)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APEC과 연계를 강화해 국가별 혁신 생태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신뢰·포용성·동반성장에 기반한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서 KSP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 'APEC 역내외 혁신을 촉진한 KSP 사례'에서는 인도네시아, 페루, 요르단 3개국의 KSP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KSP와 공동연구로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폐배터리 수거·재활용 관련 프로젝트를 두 건 수행하여 정부-민간 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페루는 원산지 검증 및 추적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단일창구(VUCE) 고도화, FTA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며 대외무역 경쟁력을 강화했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접근성을 높이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요르단은 3개년에 걸친 KSP 협력으로 녹색건축 기준 및 에너지 효율 정책을 체계화하고, 자국형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Jordan'을 마련했다. 또 에너지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같이 세 국가는 서로 다른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KSP는 정책 설계-역량 강화-제도화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 협력 모델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KSP가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촉진하는 정책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APEC 역내에서도 협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세션 'KSP,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에서는 고흥권 전 주OECD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가 좌장을 맡고, 최창용 서울대학교 교수, 잔피에로 레온치치 중남미개발 은행(CAF) 부총재, 황기연 KAIST 초빙교수 등이 참여해 KSP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패널들은 KSP가 지식전수 중심 모델을 넘어 상호학습·공동혁신(Co-Creation)에 기반한 전략적 지식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KSP의 핵심 강점으로 △현지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공공-민간-국제기구를 연결하는 거버넌스형 협력구조 △정책 실행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을 제시했다. 이어 헝가리 TIIP 사례처럼 정책·기술·산업·금융을 통합하는 프로젝트형 협력 모델이 KSP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글로벌 위기, 공급망 재편, AI 대두 등 새로운 도전 속에서 KSP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로 △전 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 △포용적·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국가 간·국가 내 기술격차 해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기술 자체보다 사회적 가치와 포용성을 중심에 둔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SP가 정부뿐 아니라 민간, 학계, 국제기구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성과공유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KSP 홍보부스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으며, KSP의 주요 성과와 협력 체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목적으로 구성했다. 부스를 △KSP 소개 △국가별 협력 사례 △홍보영상(미디어 존) △AI 체험 존 등으로 구성해 방문자가 약 10~15분 내에 KSP의 목적·추진 과정·성과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전시는 정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탐색형 전시 방식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APEC 국가 협력사례를 시각화한 미디어 콘텐츠, 인터랙티브 기반 사업 탐색 기능, AI 기반 셀피(Selfie) 출력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참석자의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이번 전시의 핵심은 AI 기반 KSP 정보서비스를 시도한 것이다. 호주,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APEC 회원 10개국의 KSP 사업 보고서를 AI 프로그램에 사전 학습시켜, 방문객이 챗봇으로 협력 대상기관, 정책 분야, 주요 자문 내용, 추진 경과 등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고서만 현장에 비치하던 기존 방식 대비 정보 접근성과 탐색 속도를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며, 해외 정부 관계자도 자국의 KSP 이해도 제고 및 신규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AI 기반 홍보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KSP가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AI·기후·공급망 등 신흥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지식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국가별 협력 사례는 KSP가 정책 설계에서 실행·제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정책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공공·민간·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 제고, 다자 연계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KSP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데 공감했고, 이는 KSP가 APEC 역내의 공동 번영을 뒷받침하는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KSP와 EDCF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제언



박종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초빙연구위원

jkpark@kdi.re.kr

### 정책자문과 차관

지난 20여 년간 KSP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기반 개발협력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독일재건은행(KfW)과 국제협력공사(GIZ),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주요 공여기관들이 정책자문을 단순한 지식 이전이 아닌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KSP를 통해 파트너국의 제도개혁, 정책설계, 실행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역시 정책자문과 기술자문이 단순한 사전검토 수단을 넘어 성과관리 지표의 다변화, 정책 일관성 확보, 자원 연계 등 개발협력의 전 과정에서 핵심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4'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도국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sup>1)</sup>하고 있다.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자문과 차관의 유기적 연계는 개발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경로로 간주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SP와 EDCF 간의 연계 역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복합단지사업이다. EDCF의 지원으로 국립아동병원이 건립 중인 가운데, 2018/19년 KSP 사업으로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암센터, 의과대학병원 등의 사업을 EDCF가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SP가 EDCF의 후속 사업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기획 도구로 작용했다.

<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복합단지 사업 >

EDCF 지원 승인	KSP
✓ 2013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	✓ 2018/19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방안 연구
✓ 2019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	
✓ 2021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최근 정부의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2025-2027 EDCF 중기운용방향」,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등에서도 이러한 연계의 필요성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사업 연계를 넘어 기획·설계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연결된 패키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전략적으로 활용

다른 국제개발협력기관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연계는 활발하다. 세계은행은 정책자문을 정책기반 차관(DPF,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또는 프로젝트차관(IPF, Investment Project

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4: Tackling Poverty and Inequalities through the Green Transition, OECD Publishing, Paris, 2024.

Financing)과 적극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은 단순히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계획 수립, 제도개선 매트릭스 설계 등 차관과 직접 연결되는 실행도구로 기능한다.

얼마 전 필자는 세계은행이 다년간의 정책자문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한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검수에 참여한 바 있는데, 성과지표 중 하나가 차관과의 연계 건수와 규모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프로젝트차관이 집행 중일 때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거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적 정책자문을 후속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 중인 방글라데시 에너지 부문 안정성 제고 사업에는 보증을 통한 차관 지원과 함께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비효율 감축 및 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도 포함<sup>2)</sup>되어 있다.

독일은 기술협력과 금융협력을 각각 GIZ와 KfW를 통해 분리 수행하지만, 개발협력 전담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독일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양자간 금융 및 기술협력 지침<sup>3)</sup>'에 따라 두 기관의 지원 수단이 상호 연계되는 경우 공동으로 심사, 기획, 이행을 수행하며, 진행상황에 대한 공동보고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기술협력이 금융협력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GIZ가 차관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뿐 아니라 실행 중 또는 사후에도 보완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JICA 역시 차관과 기술협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며, 차관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고자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자문과 역량강화 지원을 병행하고 있고, 이러한 연계가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KSP와 EDCF의 전략적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KSP와 EDCF 간 연계를 더 전략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개발협력의 수요자인 수원국 입장에서 KSP와 EDCF가 하나의 통합된 협력 패키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KSP와 EDCF가 수원국 정부와 공동으로 실무협의 및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사업기획 초기부터 함께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KSP가 축적한 많은 정책자문 사례, 특히 EDCF와의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수원국에 사업 아이디어를 보다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관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정책 자문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KSP가 사업의 실행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문 도구의 역할로 확장하는 것이다.

셋째, 연계를 제도화하려면 성과지표와 평가체계에도 반영해야 한다. KSP 성과관리 항목에는 후속 재원동원 또는 보완자문 등 연계성과를 반영하고, EDCF 평가에도 정책자문 연계성과를 구조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EDCF가 평가에 적용하는 OECD DAC의 6대 평가기준 중 일관성(Coherence) 항목은 우리나라 다른 ODA 수단과의 시너지와 상호연계성을 의미하는데, KSP와의 연계성과를 적극 평가해야 한다.

넷째, 정책자문과 차관 간 연계가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작동하도록 연계 원칙·절차·협업기준을 정리한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대표 사례 중심의 연계모델을 확산해야 한다. 또한,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례적 교육·워크숍을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성공적인 연계 사례가 축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KSP와 EDCF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 개발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 World Bank, Energy Sector Security Enhancement Project (P181811),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 Concept Stage, Report No. PIDDC01248, 2025.

3)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uidelines for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cooperation partners of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1 July 2021, <https://www.bmz.de/resource/blob/92794/guidelines-for-bilateral-financial-and-technical-cooperation.pdf>.



**이강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략표준연구실장

chan@etri.re.kr

##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AI 에이전트와 표준 경쟁

###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기술 진화의 맥락

AI 기술은 오랫동안 데이터 학습과 모델 성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생성형 AI 이후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며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의 지능을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조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구조의 출현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며 가치를 재구성했던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 과정과 지식 활동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AI 에이전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모델 중심 패러다임만으로는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요구는 점점 고도화되고, AI가 직접 도구를 호출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오가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AI는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서 '행동하는 시스템 경쟁'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에이전트의 행동이 예측할 수 있고 책임성을 지니도록 보장하는 기술적·정책적 기준은 필수이며, 이는 새로운 표준화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상황을 해석하고 결과를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잘못된 도구 호출이나 계획 오류는 업무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기존 AI 표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동과 절차 중심의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AI 표준 경쟁의 새로운 전개

AI 에이전트는 정보 처리, 도구 연동, 행동 수행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 중심 표준만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까지 AI 표준화는 주로 데이터 품질, 윤리, 신뢰성, 모델 테스트 등 기술적 기준이 중심이었으나, AI 에이전트는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운영 기반 표준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화 기구는 AI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구조, 도구 호출 규칙, 위험 상황 대응 방식 등을 새로운 논의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실상 표준을 구축하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개발자 생태계에 특화된 도구·API를 제공해 빠르게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규칙을 시장에서 먼저 굳히는 방식이다. 반면 유럽은 AI Act를 기반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표준 체계를 앞세워 자국 중심 생태계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국가 간 흐름을 조정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분야는 아직 공식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초기 단계이다.

현재는 각국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 구조와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표준 경쟁의 창(窓)'이 열려 있는 시기이다. 2025년 11월 기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에서는 약 20여 개 분야별 AI 에이전트 관련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 중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에이전트 생태계는 특정 국가나 기업 중심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기술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 AI 에이전트 시대의 표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접근

AI 에이전트는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도구 호출, 결과 검토의 순환 구조를 따라 움직이며,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적 복잡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사람의 개입 없이 여러 과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행동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기술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넘어, 에이전트의 전체 행동 흐름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확장된다.

또 에이전트는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도구를 호출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에이전트 생태계는 특정 벤더 중심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단위의 기술 주권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개방형 상호운용성 표준은 에이전트 시대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이와 더불어 에이전트가 어떤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규범적 기준도 병행하여 마련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나 의료·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에이전트의 판단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추적성·투명성은 핵심 기준이 된다. 여기에 더해 실증 기반의 테스트베드 운영과 위험 시나리오 검증은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 미래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

AI 에이전트는 한국 정부가 표방하는 '모두의 AI'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동작할 것이며, 인공지능 전환(AI)을 위한 핵심 기술 이슈이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표준 경쟁은 결국 기술·정책·산업 전략이 결합된 국가 경쟁의 문제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준은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에이전트의 구조를 정의하는 참조 모델, 위험을 고려한 안전성 기준, 개방형 상호운용성 구조 등은 향후 표준 논의에서 핵심이 될 분야이며, 이를 조기에 제시하는 국가와 기관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기존의 디지털 환경을 넘어 새로운 기술 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 질서를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산업 구조와 디지털 주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지금은 각국이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이자 기회의 시기이며, 적극적인 국제 협력과 전략적 개입으로 미래 규범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 Australi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호주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0억 호주 달러의 기후 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신규 투자의 80%에 기후 변화 목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후 탄력적인 지역사회(CRC)'와 '메콩-호주 파트너십(MAP)' 등이 있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태평양 지역 및 메콩강 협력 등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를 모색하며, 호주의 기후 적응 전문성과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청정 에너지 역량을 결합하여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Climate change risks in the Indo-Pacific are increasing the intensity of weather-related hazards such as cyclones, flooding, droughts, heatwaves and driving sea level rise and ocean acidification. The impact of these risks is disrupting trade, causing water and energy shortages, increasing risks of pandemics, conflict and displacement, and reversing progress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Climate pressures are hindering development gains and deepening inequality, particularly for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Australia is a signatory to the Paris Agreement 2015, which aims to limit global warming to well below 2.0°C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taking real and significant climate action domestically and demonstrating leadership internationally. Australia is on track to deliver AUD 3 billion in climate finance between 2020-25.

## 1. Policies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2023** sets out a long-term vision for how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will meet the critical needs of our partners, including to enhance state and community resilience to external pressures and shocks such as climate change. It commits Australia to respond to the calls of our region and evidence of the accelerating climate crisis by increasing our climate investments and better addressing climate risks.

Australia aims to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across its development program by integrating climate risk analysis and climate objectives into new investments. Our goal is that by 2028-29, 80 per cent of all new country and regional investments valued over AUD 3 million include a climate change objective. New bilateral programs also aim to align with partner countr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National Adaptation Plans.

**Australia's International Gender Equality Strategy 2024** reaffirms Australia's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and advanc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The strategy aims to deliver gender equitable climate a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ustralia's International Disability Equity and Rights Strategy 2024 continues Australia's proud legacy of support for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outlines how Australia will meet the demands of a changing world, integrating disability equity across our international engagement o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development, trade polic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limate action.

Specific regional and bilateral objectives for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ce are outlined in Development Partnership Plans (DPPs). The **Australia-Sou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4–2028** aims to accelerate the region's clean energy transition, including through the equitable uptake of technologies that contribute to mitigation and advance progress towards net zero emissions; and reduce regional vulnerability to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disasters, including through investing in adaptation of key sectors such as infrastructure and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The **Australia-Pacific Regional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5–2029** aims for quality climate programming developed through a process of deep collaboration, analysis and responsiveness to nationally determined needs; access to targeted climate finance to meet the needs of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support to Pacific governments and communities to have greater capacity and readiness to deal with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disasters.

## 2. Programs

**Climate Resilient Communities (CRC)** is DFAT's flagship climate program [AUD 221.9 million, 2024–29] aiming to increase climate investments, drive climate integration, and better address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across Australia's development portfolio in the Pacific,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CRC incentivises funding towards gender-responsive, inclusive,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ce programming, particularly in the water, food, nature-based solutions and energy sectors. For example, the Cambodia Climate Resilience Program is contributing Australia's expertise to strengthe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o reduce vulnerability and enhance climate resilience. In Vietnam, Transforming Rice Value Chains in the Mekong Delta delivers a prize-based competition to incentivise rice value chain companies to adopt new farming practices that support small household farmers to increase their income by producing high value and low emissions rice.

Australia is strengthening Mekong resilienc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notably through the **Mekong-Australia Partnership (MAP)** [AUD 454 million, 2020-29], building on our bilateral,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 (ASEAN) and other regional programs. MAP was launched in 2020 to work flexibly to help tackle shared and transboundary development challenges by investing in: climate resilience, water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countering transnational crime; and developing leadership and skills. In August 2025, Foreign Minister Wong announced a new suite of MAP climate resilience investments to support collaborative ways of working to protect biodiversity, help local communities adapt to climate-responsive agriculture and work with remote communities to protect livelihoods impacted by climate change. MAP includes a thematic focus on gender equality,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reflecting that enhancing climate resilience and water security can promote economic resilience and social well-being by safeguarding livelihoods and ecosystems, while also ensuring the voices of women and marginalised groups are heard in policy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lmost half of Australia's climate finance between 2020-25, [AUD 1.3 billion, goes to our Pacific Partners, delivere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at regional and bilateral level. For example, Australia and New Zealand contribute to the Climate and Oceans Support Program in the Pacific (COSPPac) that enhances climate and ocean resilience across Pacific Island countries by equipping national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services with the data, tools, and expertise needed to deliver accurate forecasts and early warnings. This enables Pacific governments and communities to make informed decisions that protect lives, livelihood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By combining traditional knowledge with scientific data, COSPPac ensures that climate and ocean services are accessible, inclusive, and culturally grounded.

Australia's broader development programming spans a range of sectors that are critical to regional resilience, from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e to water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disaster preparedness. Through the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AIFFP)** [2019+], Australia is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and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solar power generation in Palau, transmission network upgrades in Solomon Islands and technical assistance to improve flood management in Fiji.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CIAR)** is supporting smallholder farmers to adopt climate-smart practices and strengthen food systems, complemented by regional initiatives such as the Centre for Pacific Crops and Trees (CePaCT) and the Pacific vision for Adapted Crops and Soils (PACS), which safeguard climate-resilient plant varieties.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P4I)** [2021+] is Australia's flagship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itiative in Southeast Asia. P4I works with eight Southeast Asian economies and ASEAN, supporting partners to manage and deliver new infrastructure worth over AUD 50 billion annually. For P4I, ensuring that climate resilience and inclusivity are embedded in infrastructure decision making, policy planning and reform is core business.

### **3. Collaboration between Australia and ROK**

Australia and the ROK can expand climate programming collaboration in the **Pacific**, where both are development partners to the Pacific Islands Forum (PIF) Secretariat

and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SPREP). Support to Pacific priorities under the PIF's 2050 Strategy, including contributions to the Pacific Resilience Facility are Pacific priority. Contributions to the fund could support climate adapta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nature-based solutions. Australia has committed AUD 100 million to the Facility. As development partners, Australia and the ROK have already both funded (with New Zealand and Sweden) Governance for Resilient Development in the Pacific (Gov4Res) [2019-2024], managed b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Gov4Res has supported Pacific governments to integrate climate and disaster risk into national planning, budgeting, and community-level decision-making, aiming for development outcomes that are resilient and inclusive.

Australia and the ROK also support subregional **Mekong** cooperation, amplifying local voic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2024 Australia-ROK 2+2 Foreign and Defence Ministers' Meeting, Ministers agreed to deepen engagement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rough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where Australia currently chairs the Development Partner Group (2025–2026). Both countries participate in Ayeyarwad-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and Friends of Mekong forums and support civil society networks addressing shared challenges.

The ROK's Mekong-Korea Cooperation Fund (MKCF) supports green growth, water,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ncluding solar education programs and climate adaptation in Cambodia. Australia's MAP and MKCF share objectives in climate resilience and green development, offering scope for coordinated programm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forums offer further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including the Korea-Australia Future Forum, Korea-Australia Future Youth Forum, UN Climate Change Conferences, PIF, ASEAN, East Asia Summit (EAS), the cross-regional consultative partnership between Mexico / Indonesia / ROK / Turkey / Australia (MIKTA),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Both countries contribute to disaster risk management under EAS and ASEAN frameworks, and Korea hosts the APEC Climate Centre.

In conclusion, Australia and ROK bring complementary strengths to climat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Australia offers expertise in climate adaptation, sustainable agriculture,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inclusive climate finance. Korea contributes advanced technology, innovation, water management, and clean energy expertise. Harnessing these strengths can deliver impactful, joint outcomes across the Indo-Pacific.

## 일상과 산업의 숨은 힘, 측정과학을 통한 KSP 협력



김 광 섭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초빙연구위원

ksyj1@naver.com

측정과학(Metrology)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도량형 개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1m, 1kg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재더라도 똑같도록 약속하는 것이 측정과학의 본질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팔 때도 이런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표준을 만들기도 했다.

이집트라고 하면 피라미드가 우선 떠오를 텐데, 피라미드야말로 건축학, 계량과학의 결정체이다. 카이로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는 쿠푸왕이 건설했다고 하는데, 건설 당시 돌의 길이를 규격화할 필요가 있어 큐빗(약 46cm)이라는 길이 표준을 정했고, 이게 도량형, 즉 측정과학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 혁명기에 발명된 미터법이 근대적 의미에서 측정과학의 시작점인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800여 가지로 다양한 도량형 단위가 사용되어 상거래와 세금부과에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한다. 이에 당시 계몽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 바로 미터법이다. 미터법 도입은 당시의 혼돈스러운 정치, 사회 상황 속에서도 과학과 합리성으로 사회질서를 재정비하고 혁명의 이상을 물리적 척도로 구현하려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량형 체계가 제대로 정착된 것은 세종대왕 때부터라고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한 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종대왕 때 이를 '가로세로 1자의 넓이<sup>1)</sup>로 정리했다고 한다.

이러한 측정표준은 비단 상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기, 가스, 수도의 요금이 잘못 계량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정기 검정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한다.

코로나19 시기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마다 디지털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측정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같은 대혼란 상황이 측정과학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부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측정표준은 큰 의미를 지닌다.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8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문제로 시끄럽지만, 무역에 있어서 수입 상품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는 조용하고도 강력한 비관세장벽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배출가스 기준, 안전규격, 품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측정과 검증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관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수출길이 막히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통일된 측정과 기술표준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 무역장벽 해소, 나아가 수출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

1) 한 줌은 원래 넓이 단위였으나, 땅에서 수확하는 곡식의 생산량과 직접 연결되면서 점차 부피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필자가 참여한 콜롬비아 KSP사업 수행 시 보고타 KOTRA 사무소를 방문했고 측정, 계량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콜롬비아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신고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한다. 즉 콜롬비아의 강화된 화장품 안전, 표준규제로 인해 측정규격 불일치 문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측정과학은 기업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산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반도체를 생산한 1983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측정과학이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얇은 박막을 입힌 후 표면처리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이 박막 두께의 균일성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장비의 정확도 평가와 교정을 위한 측정표준이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불량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즉 측정과학은 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산업 인프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측정과학은 공공 인프라로서 국가경쟁력 확보, 경제성장과 혁신의 촉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AI 등 신기술에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스마트 센서와 지능형 측정시스템 개발 같은 측정과학의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콜롬비아 정부도 2023년에 국가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측정과학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지만 생물다양성 면에서는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셋째라고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소음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연환경에서 소음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소음은 동물의 스트레스, 의사소통 방해, 생존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동물을 분류하고 개체수를 파악하는 데 음향 분석과 같은 측정과학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소음측정(Acoustic measurement)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SP사업 이후 국제개발원조 등 양국 간의 협력사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수치이지만 그만큼 측정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일관성과 정확성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과 정확성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측정과학에 힘입은 바도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개발협력의 전략과 과제



김 태 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kimthink@kongju.ac.kr

전 세계는 지금 식량안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식량은 인간 생존의 기초이자 경제적·사회적 안정의 핵심 축이며, 국제정치의 전략적 자산으로도 인식된다. 그러나 기후위기, 분쟁, 팬데믹,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면서 식량체계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그 영향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2년 3월, FAO Food Price Index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이며, 세계 식량시장 내 불확실성과 투기적 거래 구조를 반영한다. 동시에 2022년 기준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약 8억 2,000만 명에 달하며, 식량 불안정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식량 공급망의 혼란, 국제 시장의 가격 불안정, 수출 제한 조치 확대 등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을 넘어선다. 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곡물 생산 기반의 약화, 농업 인프라 미비, 기후 대응 능력 부족,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식량체계의 취약성은 반복적인 불안정 상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이전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 전환적 접근과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흐름에서 농업 분야 개발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과거의 생산성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식량체계(food system) 전반의 회복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농업이 빈곤 감소, 영양 개선,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생계 안정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직결된 핵심 분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 흐름에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목받는 전략적 협력국이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 식량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였지만, 농업 인프라 확충, 농지개혁, 기술 보급, 농민 조직화 등을 바탕으로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발전 경험은 단지 과거의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등 첨단기술과 지역 맞춤형 접근이 결합된 협력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수원국의 식량체계 내 구조적 취약성과 수요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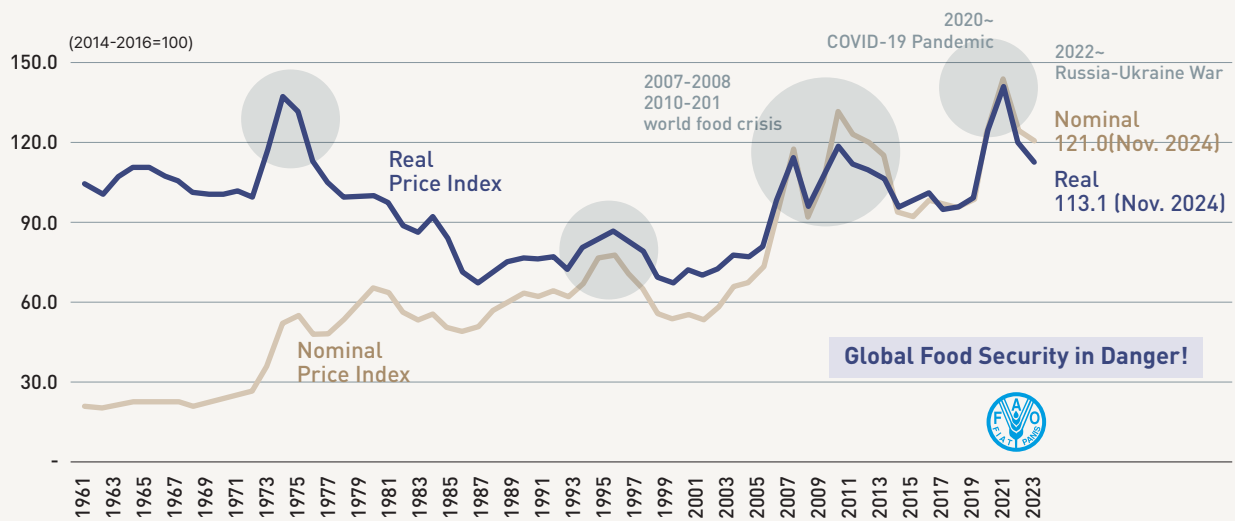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한국의 중점협력국들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기후, 시장, 인프라,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기후위기에 특히 민감하여 홍수와 가뭄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곡물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또 주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시장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며, 공공 차원의 저장 및 유통 인프라가 부족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요소는 식량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저해하는 복합 요인으로 작동하며, 이는 기술이전 중심의 전통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는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 생산 방식, 열악한 저장·유통 인프라, 농민의 시장 접근 제약, 정보 격차 등 식량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요소는 상호 작용하며 식량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위기로 접근해야 하며, 그 대응 역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전환과 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체계 회복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협력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의 공동 개발과 보급, 협동조합 및 계약농 중심의 농민 조직화, 공공 저장 및 유통 인프라 구축, 디지털 농업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식량안보 4대 요소(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활용성)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협력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를 넘어, 수원국 식량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농업 분야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환의 핵심 수단이며, 한국은 역사적 경험과 기술역량, 정책·제도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이다. 식량안보를 매개로 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단지 수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996~2023년



자료: FAO(2024)

# [2024/25 키르기스공화국 KSP]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ODA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성현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연구원

hj.sung@kdi.re.kr

## 1. 전략적 개발협력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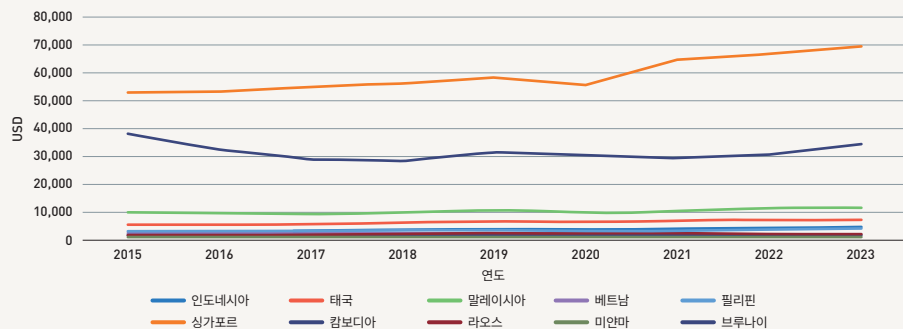
2020년대 들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더불어 공적개발원조(ODA)를 둘러싼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공여국은 개발협력 정책을 국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하에 대외원조 예산을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편하거나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비단 공여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원국 또한 ODA에 대한 주인의식을 한층 강화하며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원조 재원의 우선순위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개발도상국의 모니터링·평가(Monitoring & Evaluation; M&E) 역량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국가 M&E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외원조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의도이다.

## 2. 키르기스공화국 ODA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공화국 역시 '키르기스공화국 국가발전전략 2018-2040' 달성을 위해 신규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및 M&E 체계 수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키르기스공화국으로 유입된 ODA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100%에 근접하는 등 대외채무 관리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림 1 참조). 이에 무상원조 전담 부처인 경제상무부와 함께 현행 원조사업 관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키르기스공화국 공공투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를 주제로 2024/25년 KSP를 추진했다. 한국이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축적한 경험을 비롯해 정부의 업무 평가제도 발전 과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키르기스공화국 경제상무부가 자체적인 ODA 사업 평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이 KSP의 목표이다.

그림 1 키르기스공화국 ODA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추이<sup>1)</sup>



1) World Bank DataBank,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22

KSP팀이 협력부처인 경제상무부뿐 아니라 교통통신부·농림부·에너지부·보건부 등의 사업 수행 주무부처, 키르기스공화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 협의해 파악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원조 사업 관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일정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서는 인적 역량 부족, 기관 간 공조 미흡, 평가 체계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었다. 둘째,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국가전략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체계적인 사후평가가 부재하여 단기적 산출물 중심의 형식적 평가가 주를 이루며, 사업의 실제 효과성과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성찰은 부족했다.<sup>2)</sup>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KSP팀은 한국이 발전 과정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도입,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실 신설 등을 바탕으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해온 경험이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KSP팀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가 ODA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통합적 평가체계 수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여러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체계와 방향성에 대한 정책 권고와 함께, 키르기스공화국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 절차 가이드라인과 보고 양식, 측정 항목별 예시 지표(표 2 참조)를 제공했으며,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사후평가 방법론 사례 역시 포함했다. 또 한국 외에도 수원국의 M&E 체계 수립 모범 사례로서 베트남과 르완다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베트남은 중앙 정부 주도의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ODA를 국가전략과 연계하고 평가 및 투자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르완다는 수원국 주도로 공여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정책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국 주인의식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sup>3)</sup>

<표 1> 주제별 주요 정책 제언

구분	세부 주제명	주요 제언 사항
세부주제1	공공투자 프로젝트, 보조금 및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관리 거버넌스 구조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평가 제도화 및 주관부처 역량·권한 강화</li> <li>• ODA 관리체계 고도화(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발전계획의 평가결과 환류, M&amp;E 전문부서 신설 등)</li> </ul>
세부주제2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E 프레임워크 표준화 및 제도화</li> <li>• 분야별 맞춤형 평가방법론 수립</li> <li>• 평가자·피평가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li> <li>• 원조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처 간 정보 교류</li> <li>• 전략적 공여기관 조정 역할 제도화</li> <li>• 무상원조 사업 거버넌스 재정립</li> </ul>
세부주제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평가 제도화 및 체계화</li> <li>• 사업 선정·승인·계획 제도 개선</li> <li>• 데이터 기반 영향 평가 도입</li> <li>• 수요 기반의 인프라 사업 설계</li> </ul>

2) J. Kim, E. Kim, K. Park (2025). 2024/25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Kyrgyz Republic.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 J. Kim, E. Kim, K. Park (2025). 2024/25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Kyrgyz Republic.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표 2> ODA 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위한 지표 예시 -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측정 지표의 예

지표	설명(측정방법)	데이터 출처	측정 빈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사업 수혜자의 소득 변화를 PPP(구매력평가)로 조정하여 현지통화 기준 측정	가구조사, 통계청 자료	기초선 조사, 사업 종료 후 3년 뒤/5년 뒤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감소	국가 빈곤선 이상으로 향상된 인구의 비율	빈곤 관련 공식 통계청 자료, 가구조사	매년
고용 창출	순 신규 일자리 창출 수 (연령/성별/지역별)	노동부 행정데이터, 사업집행조직(PIU) 보고서	반기별
기본 서비스 접근성	물, 보건, 교육 서비스 접근성 증가율(%)	분야별 관련 정부보고서, 지방정부 행정데이터	매년
행동변화	태도 및 행동의 변화	초점집단면접(FGD), 인식조사	기초선조사, 종료선조사
사회적 취약성 감소	취약성 지수 변화	가구조사	기초선조사, 종료선조사

이 KSP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부 전체로 확산 시키는 것과, KSP로 제공한 자문 내용을 경제상무부가 주인의식을 갖고 현지 맥락과 여건에 맞게 내재화하는 것이다. 특히 서로 성격이 다른 무상원조 사업에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직접 실행해 보면서 분야별로 가장 적합한 평가 지표와 방법론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2025년 7월 개최된 최종보고회는 협력부처인 경제상무부 외에도 15개 부처·기관의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KSP팀과 협력부처는 이 자리에서 ODA 사업 평가제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특히 경제상무부 대외지원국 Toktorbaeva Begimai 국장은 종합토론에서 패널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여 참석 부처를 대상으로 비공식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직접 실행·실험하면서 KSP 자문 결과를 내재화하자고 제안했으며, KSP팀도 이러한 현지 주도의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뜻을 전했다.

KSP팀은 또한 Bolotov Sanzharbek 경제상무부 차관과의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ODA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고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KSP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이 현지 맥락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Bolotov 차관은 정부 차원의 평가체계 정비 노력에 KSP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할 의지를 표명하며,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이번 KSP가 정책제언 이행 모범 사례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3. 개발협력에서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십 접근

이번 키르기스공화국과 KSP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국의 발전전략과 우선순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는 결국 수원국 자신이라는 점이다. 개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주도성과 주인의식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요소이다. 키르기스공화국 정부가 이러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KSP에 참여한 만큼, 향후에도 자문 결과를 자국의 정책 환경과 행정 여건에 맞게 현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나가기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키르기스공화국이 M&E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재원을 더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KSP는 수원국 관점에서 ODA를 더 주체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이 개발도상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여국의 ODA 축소 및 전략적 재배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국 또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제한된 자원을 국가전략에 맞게 활용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공여국-수원국' 구도를 넘어, 양측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조율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물론 여러 도전과 우려가 존재하지만, ODA 자원이 더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실질적인 개발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전환점이자 국제 개발협력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2, 3] 2024/25 키르기스공화국 KSP 최종보고회





이 세 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전문연구원

sehlee@kdi.re.kr

## [2024/25 폴란드 KSP]

# KSP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제 구축

### 1. 폴란드와의 첫 번째 양자 KSP:

#### 디지털전환, AI, 사이버보안 협력으로 심화된 협력의제

2024/25 폴란드 KSP 사업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MRiT)와의 첫 번째 양자협력사업이며, 폴란드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2016~2019년까지 3년간 비셰그라드 그룹과 다자협력 형태로 KSP 사업에 참여하여 창업, R&D 활성화, 서비스업 부문 발전 등 중소기업 혁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 정책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금년도 KSP 사업에서는 연구범위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여 폴란드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 부문에서 한-폴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폴란드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46.6%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은 자동화와 운영 효율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활용과 사이버보안 강화 등 지능형 의사결정, 수요예측,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폴란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과정에서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낮은 인식 ▲공공-민간 간 연계 부족으로 정책 시너지 저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부재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이버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차원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한국의 등 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자 2024/25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신청하였다. 이번 폴란드 KSP 사업은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구축(Strengthening Strategic Framework for SME Digital Transformation in Poland)'을 주제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수립과 AI, 사이버보안 분야의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방안 등 총 3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 2. 폴란드 KSP의 주요성과: 정책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로

2024/25 폴란드 KSP 사업은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마침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for Enterprises)을 구상하고 있었고, 한국의 정책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2026년 해당 정책발표를 계획하고 있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점을 인상 깊게 바라보았다. 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요를 견인하고 정부, 대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디지털 전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한국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KSP를 통해 파악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의 연구진은 중기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지원사업, AI 바우처 사업사례를 소개하며 AX, DX 분야에 집중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혜자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디지털, AI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Technology Provider)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중소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실증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AI 규제샌드박스 도입,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이버보안 센터 설립 및 간소화된 사이버보안 인증체계 운영 등이 주요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금년도 KSP는 정책자문을 넘어 사업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중간보고회 방한 일정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관계자는 네이버, 안랩 등 한국을 대표하는 AI, 사이버보안 기업면담을 통해 폴란드 기업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한국의 리커머스(중고거래) 스타트업인 번개장터는 이후 바르샤바에서 열린 KSP 최종보고회에 공식 초청되어 AI 기반 안전결제시스템 도입사례를 폴란드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동유럽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Allegro와 폴란드 디지털경제상공회의소(e-Izba)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성과도 얻었다.

**[사진 1] 폴란드 KSP 언론보도기사\_파이낸셜뉴스,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PICK · 2025.05.20. · 네이버뉴스

**[단독]네이버·안랩·번개장터 보러오는 폴란드, 'K-디지털 전환' ...**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으로 KDI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와 추진하는 첫 번째 양자 협력 사업이다. 정책 자문의 핵심 주제는 '폴란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정책 수립'이다. K...



"DX 협력" 폴란드 정부, 네이버·안랩 등 찾아온다 파이낸셜뉴스 · 2025.05.20. · 네이버뉴스

동아일보

**번개장터, 폴란드서 '스타트업 혁신' 사례 발표... 기업 간 후속협력 기대감↑**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 제안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 협력 사업이다.



2025. 7. 24.

**3. KSP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 선제적인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용**

경제개발기술부와의 첫 번째 양자협력이었는에도 폴란드 KSP 사업이 정책자문 이외에 다양한 연계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전연구를 통한 KDI의 선제적인 사업발굴 전략이 작용했다. KDI는 동유럽 시장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는 폴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에 유의하며, 폴란드 정부와 신규 KSP 사업을 발굴해 기존 방산 중심의 경제협력 범위를 AI,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DI에서는 사업착수 1년 전인 2023년부터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과 한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후 사전연구 결과를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에 공유하며 KSP

기반 양자협력을 제안하였고, 폴란드 측의 사업신청서 접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국내 현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업관리 방식도 KSP 연구결과를 후속 협력 활동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종보고회 준비과정에서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 30여 명을 보고회에 공식 초청하여 한-폴 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였다. 폴란드 측에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슈퍼컴퓨터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 연구소와의 면담을 주선해 주었다. KSP를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폴란드 고위급 방한행사 기획, 유관기관 간 후속협력 협의 등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진 2] 폴란드 KSP 정책실무자연수: 안랩(Ahnlab) 방문



#### 4. 한-폴 디지털 및 AI 협력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KSP

올해 폴란드 KSP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디지털전환, 특히 AI 분야에서 양국 간 후속협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KDI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2026년 상반기에 AI 세미나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여 AI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설계 방향과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인공지능 규제혁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를 계기로 폴란드 측에서는 KSP 핵심 정책제언 중 하나인 AI 규제샌드박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폴란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총괄부처인 폴란드 디지털화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에서 올해 AI 샌드박스, AI 팩토리 관련 주제로 2026/27 신규 KSP 사업을 신청하였다. 최근 EU에서 폴란드 포즈난(Poznań), 크라쿠프(Kraków) 지역에 신규 AI 팩토리 2개 설립을 발표하며, 폴란드가 유럽 AI 혁신의 중추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화부와 후속 KSP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확정되면, 이재명 정부의 AI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폴란드와의 AI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25 폴란드 KSP는 KDI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디지털전환, AI,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제를 선도하고, 정부 간 정책대화와 후속협력으로 발전되도록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싱크탱크 역할에 걸맞은 지식공유사업으로 볼 수 있다. 금번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AI 분야에서 장기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KSP가 실질적 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홍기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전문연구원

doublehk8272@kdi.re.kr

## 디지털 전환 시대, 페루 보건 의료 혁신과 한-페루 협력 가능성

페루는 16세기 초까지 남미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잉카(Inca) 문명의 중심지이자 마추픽추, 나스카 사막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로 요구된다.

### 페루 보건 의료 현황

페루의 의료보험 체계는 공공(SIS, EsSalud, PNP, FAP, NAVAL)과 민간(Privado)으로 구분되며, SIS와 EsSalud가 전체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고 대기시간이 길어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그런 반면에 민간의료는 신속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만 이용할 수 있다.

지리적·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제약이 크다. 페루는 넓은 영토 대비 전문병원이 부족하고, 1차 의료기관은 한 곳당 환자를 약 1만 명 담당해야 하며, 국토의 60% 이상이 밀림과 산악 지대로 구성되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하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며, 공공병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미비하여 의료기록이 여전히 수기로 작성되고, 영상자료 판독도 형광등을 이용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페루 정부는 이동검진 차량 운영 등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장비 현대화 등 보건 분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Zoom 기반 원격진료가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의 초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페루 보건 의료 디지털 전환 전략

페루 정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하면 인력과 시설 등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과정에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페루 정부는 보건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보건강화계획 2007-2020, 페루 2030 보건 다분야정책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자원 할당 역량이 부족하다. 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과 교육 수준이 낮아 국민이 활용하기 어렵고, 특히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취약하다.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낮다는 점도 디지털 헬스 기술 도입과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전환하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	농촌 및 빈곤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며, 인터넷 연결, 데이터 저장소, 클라우드 등 물리적 및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과 활용도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개선 및 확장하여 의료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신속히 확인하고,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추가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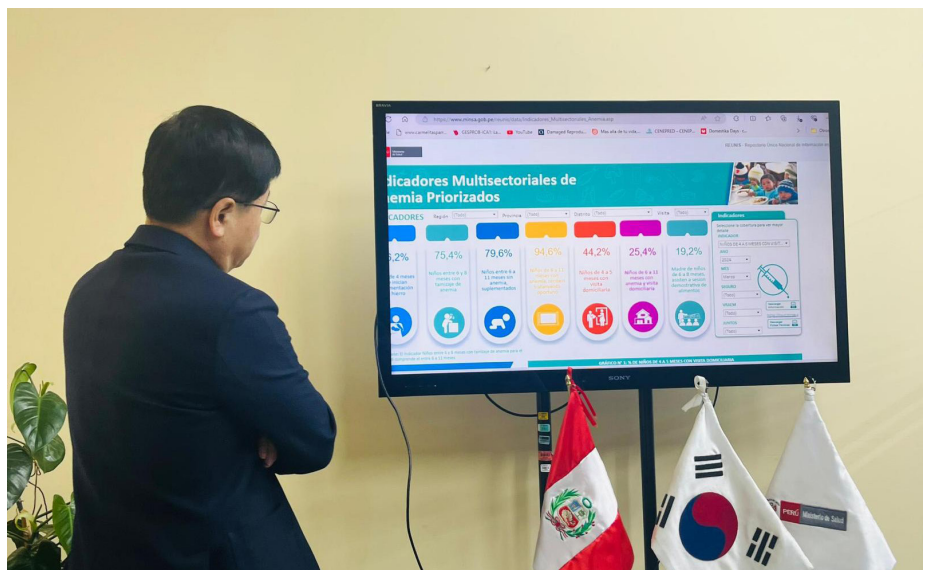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한-페루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가능성

한국의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경험은 페루의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페루 간의 디지털 전환 협력은 페루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목표와도 맞물려 있으며, 페루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페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접근이 있다.

- 질병 및 환자 예방 차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농촌·소도시 만성질환 관리 스마트 통합케어) 등
- 질병 및 환자 관리 차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 의료데이터 관리 및 상호운용성 차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등을 통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이를 바탕으로 페루 보건부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건강 정보시스템 개선,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실질적인 정책자문 방안을 협의하였다.





### 페루 보건의료 전망 및 한-페루 협력의 시사점

한국과 페루는 196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경제, 산업,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협력 수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최근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 아래 페루 및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의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페루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주요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s-Is	To-Be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인프라	원격진료 및 협진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모바일 앱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식 개선 및 의료진 역량 강화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이행
보건의료 수요 증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관리로 효율적 대응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IC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실질적인 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양국 간 협력은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 보건 협력 모델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니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CDI 연구보고서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복합위기의 해결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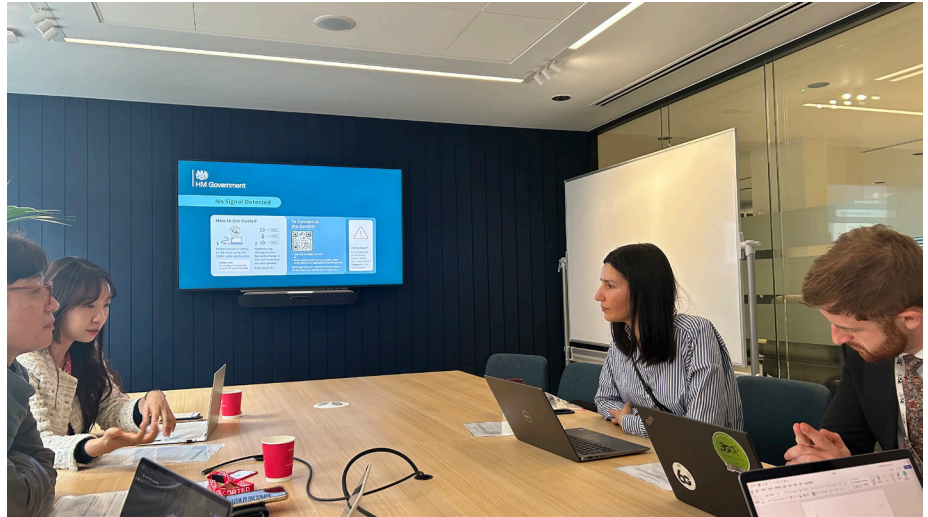
## KSP 출장 소회 인터뷰





**왕유선**  
YKSP 8기  
24/25 영국 KSP 인턴  
yuseon6602@gmail.com





**이서영**  
YKSP 8기  
24/25 마다가스카르 KSP 인턴  
seoyoung10126@gmail.com







###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YKSP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왕유선**  학부 시절부터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며 '어떻게 하면 한국이 더 효과적인 ODA를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YKSP는 이러한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영**  어렸을 때부터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제가 작게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게 되었고, 실무 경험과 현장 이해를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24/25년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 기간 전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왕유선**  출장 전에는 파견 국가에 대한 심층 조사와 사업 관련 자료 파악을 통해 현장에서 연구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출장 이후에는 현지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 및 행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서영**  출장 기간 중 최종보고회와 고위정책대화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방향과 흐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장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소감은 어땠나요?

 **왕유선**  이번 영국 KSP 사업은 기존의 개발협력보다는 양국 공동 연구 형태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덕분에 경제협력 사업의 실제 추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를 다루는 사업에 한국 측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서영**  착수보고회 이후 두 번째 출장으로, 다시 약 하루가 걸리는 긴 여정을 거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니 KSP가 이렇게 멀리 있는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실감되었습니다. 첫 출장보다 더욱 호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 의미가 컸고, 앞으로도 KSP를 계기로 두 국가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이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정책대화 및 면담 속 기억에 남았던 순간 등)은 무엇일까요?



 **왕유선**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의 면담 일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해외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간 진행되었던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PM님과 PO님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모습이 매우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서영**  마다가스카르 산업통상부 국장님께서 KSP 연구진의 지식 공유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신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이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마다가스카르 정책 수립을 지원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KSP의 큰 장점이자 차별성이라고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예: 향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의 다짐 및 YKSP 활동을 통해 얻은 점 등)

 **왕유선**  YKSP 활동을 통해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이 파트너 국가와 함께 새로운 발전 경험을 공동 창출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YKSP 활동을 통해 KSP 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럼과 행사에 참여하며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활동한 YKSP 8기 분들과의 경험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사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연구 확산 세미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산업·기업가정신개발부 및 아시아생산성기구(APO)와 공동으로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연구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리랑카가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행사에는 스리랑카 산업·기업가정신개발부 장·차관 및 사무총장, 국가생산성사무국(NPS), 정부 부처, APO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수닐 한둔네티 (Sunil Handunneththi) 산업·기업가정신개발부 장관은 생산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이번 마스터플랜이 정부·기관·기업·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생산성 운동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 세미나에서 스리랑카 정부 요청에 따라 APO를 통해 수행한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를 수출·혁신 주도 부문으로 재배치, ▲FDI 확대 및 해외 고급인력(diaspora)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개방성 강화,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 회복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또한 2024-2029년 실행전략으로 ▲인적자본·혁신·인프라 기반의 혁신경제 전환, ▲규제·거버넌스·디지털 행정 등 시스템 수준 개혁, ▲농업·수산·관광·섬유·ICT 등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별 맞춤형 발전전략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DI가 지난 수년간 APO와 공동으로 베트남·라오스·파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국 대상으로 국가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을 수행해 온 경험을 스리랑카에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KDI는 생산성 제고를 단기 경제회복이 아닌 구조개혁·산업고도화·인적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이번 스리랑카 마스터플랜 역시 이러한 축적된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번 세미나는 스리랑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KDI는 앞으로도 APO 및 스리랑카 정부와 협력해 스리랑카의 생산성 중심 성장전략 실행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

## 💡 2025년 국제개발협력연구

<p><b>I.</b> 개발협력 정책연구</p>	<p><b>경제안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식량·물·에너지 안보 관련 개념 및 국제 동향 분석</li> <li>■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 수준과 현안 분석</li> <li>■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 분석</li> <li>■ 식량·물·에너지 넥서스 기반 안보 개념 확립 및 국제개발협력 가능성 협력방안 도출</li> </ul> <hr/> <p><b>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비선형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li> <li>■ 기후변화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li> <li>■ 국제기구·지역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동향 및 전략 분석</li> <l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도출</li> </ul>
<p><b>II.</b> 지역·국가 심층연구</p>	<p><b>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 및 효과 분석</li> <li>■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경험 분석</li> <li>■ 한국과 베트남 경제구역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 참여 전략 제시</li> <li>■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li> </ul> <hr/> <p><b>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역내무역 추이 및 경제통합 현황 분석</li> <li>■ AfCFTA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검토</li> <li>■ RTA 효과 분석을 통한 AfCFTA 이행 시사점 도출</li> <li>■ AfCFTA를 활용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모색</li> </ul> <hr/> <p><b>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아태지역 무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li> <li>■ 국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여 한국의 기후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li> </ul> <hr/> <p><b>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 분석</li> <li>■ 디지털 무역 이론 및 ASEAN·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규제 동향 분석</li> <li>■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가 개도국 성장·무역·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도출</li> <li>■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li> </ul>
<p><b>III.</b>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p>	<p><b>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사례와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협력국의 분야별 정책사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조사(Case Study)</li> <li>■ 몽골/주택금융, 베트남/농촌개발, 코스타리카/탈탄소, 헝가리/교통 정책의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요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li> <li>■ KSP, EIPP 정책자문사업에 시사점 도출</li> </ul>

 국제협력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개발원조(ODA)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조정 거버넌스 공동연구</li> </ul>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li> </ul>
아시아개발은행 (A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li> </ul>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li> <li>■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li> <li>■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li> <li>■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li> <li>■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li> </ul>
세계은행(WB)	2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제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에 관한 가이드</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li> <li>■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li> </ul>
미주개발은행 (I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li> </ul>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연구</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li> </ul>
유엔개발계획 (UNDP)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li> </ul>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li> </ul>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li> </ul>

 국제 행사

<p>2025</p>	<p><b>KDI-LPEM 공동 세미나</b></p> <p><b>1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5년 8월 2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li> <li>■ 주제: 불확실성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방안</li> </ul> <p><b>2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5년 12월 1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li> <li>■ 주제: 중소기업(MSME)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정책</li> </ul> <hr/> <p><b>2025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5년 9월 25일 / 서울</li> <li>■ 주제: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li> </ul> <hr/> <p><b>영국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 인공지능 표준 및 규제 공동 세미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5년 11월 18일 / 영국 런던</li> <li>■ 주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AI 표준화 및 규제 제도 방안</li> </ul> <hr/> <p><b>ADB: 정책라운드테이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5년 12월 9일-10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li> <li>■ 주제: 질적 성장을 위한 아시아 미래 번영 구축</li> </ul>
<p>2024</p>	<p><b>세계은행: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li> <li>■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li> </ul> <hr/> <p><b>브루킹스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li> <li>■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li> </ul> <hr/> <p><b>ADB: 2024 글로벌 포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li> <li>■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li> </ul> <hr/> <p><b>헝가리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 제도 공동 세미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4년 10월 3일 / 헝가리 부다페스트</li> <li>■ 주제: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 제도 방안: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li> </ul>

<p><b>2023</b></p>	<p><b>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li> <li>■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li> </ul> <hr/> <p><b>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li> <li>■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li> </ul> <hr/> <p><b>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li> <li>■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li> </ul> <hr/> <p><b>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인천 송도</li> <li>■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li> </ul>
<p><b>2022</b></p>	<p><b>2022 KDI 글로벌 포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li> <li>■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li> </ul>
<p><b>2020</b></p>	<p><b>2020 KDI 글로벌 포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li> <li>■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li> </ul>



##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 2025년 특별호



#### 특별호

국제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 강성진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객재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 홍성창, 방호경

#### 이슈톡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 있나? | 손의영

AI를 위한 NETWORK | 이정기

#### 동향 분석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 윤지희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한-말레이시아 협력과제 | 송지은

#### KSP/EIPP 포커스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  
 | Giulia Torchio  
 디지털 금융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우혜영, 정희선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성과 | 최진아

#### CID 연구포커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쟁점 및 현안: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김대용, 김지원

### 2025년 2호



#### 이슈톡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 손욱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 이종화

#### 동향 분석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 강나연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 전영진

#### KSP 포커스

[2024/25 온두라스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 서예주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 최진아

####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김민정, 노다현

2025년 1호



**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 고승범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강성철

**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 구석모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 정지훈

**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윤근영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박미서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 김대용, 이진이

2024년 특별호



**이슈톡**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 강성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 박지형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 김서용

**동향 분석**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선이

**KSP 포커스**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 김지원

**CID 연구포커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 방호경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최다인, 하지유

<p><b>2024년 3호</b></p> <p>▶</p>	<p><b>이슈톡</b></p> <p>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로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범택 </p> <p><b>동향 분석</b></p> <p>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권혁신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송지선</p> <p><b>KSP 포커스</b></p> <p>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최효정, 안치영</p> <p><b>CID 연구포커스</b></p> <p>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남보라, 김하아람</p>
<p><b>2024년 2호</b></p> <p>▶</p>	<p><b>이슈톡</b></p> <p>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정홍상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강재헌</p> <p><b>동향 분석</b></p> <p>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방설아 </p> <p><b>KSP 포커스</b></p> <p>[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홍기현</p> <p><b>CID 연구포커스</b></p> <p>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김대응, 황서영</p>

<p><b>2024년 1호</b></p> <p>▶</p>	<p><b>이슈톡</b></p> <p>ESG와 국제개발협력   정무경</p> <p>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정지훈 ▶</p> <p><b>동향 분석</b></p> <p>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박상우</p> <p>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강문수 ▶</p> <p><b>KSP 포커스</b></p> <p>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amp; Creative Industries)   안치영</p> <p><b>CID 연구포커스</b></p> <p>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우혜영, 이소희</p>
<p><b>2023년 특별호</b></p> <p>▶</p>	<p>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김정욱</p> <p><b>이슈톡</b></p> <p>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김은주</p> <p>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권율 ▶</p> <p>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호경 · 이소희</p> <p><b>동향 분석</b></p> <p>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이요한 ▶</p> <p>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김은경 ▶</p> <p>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정상희 ▶</p> <p>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지 ▶</p> <p><b>KSP 포커스</b></p> <p>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윤근영</p> <p><b>CID 연구포커스</b></p> <p>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p>

2023년 3호



**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

**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

**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

2023년 2호



**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

**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

**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

<p><b>2023년 1호</b></p> <p>▶</p>	<p><b>이슈톡</b></p> <p>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임호열 </p> <p>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성한경</p> <p><b>동향 분석</b></p> <p>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김은주 </p> <p>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이재광 </p> <p>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황금물결</p> <p><b>KSP 포커스</b></p> <p>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유성희</p> <p><b>CID 연구포커스</b></p> <p>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김대용, 이소희</p>
<p><b>2022년 3호</b></p> <p>▶</p>	<p><b>이슈톡</b></p> <p>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정성철 </p> <p>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김성규 </p> <p><b>동향 분석</b></p> <p>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홍문숙</p> <p>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김유나, 홍은선</p> <p><b>CID 연구포커스</b></p> <p>국제협력과 지식공유   김정욱, 윤지희</p> <p>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p>

<p><b>2022년 2호</b></p> <p>▶</p>	<p><b>이슈톡</b>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윤석현</p> <p><b>동향 분석</b>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황금물결 </p> <p><b>KSP, EIPP 포커스</b>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김하아람</p> <p><b>CID 연구포커스</b>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홍성창</p> <p><b>YKSP 스토리/CID 소식</b>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이태연</p>
<p><b>2022년 1호</b></p> <p>▶</p>	<p><b>이슈톡</b>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장은혜</p> <p><b>동향 분석</b>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김예림</p> <p><b>KSP, EIPP 포커스</b>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송지은</p> <p><b>CID 연구포커스</b>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우혜영</p>

▶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 지식공유 Brief

##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김다은 연구원(044-550-4475, dek@kdi.re.kr)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편집위원**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다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75,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